

관객 배려 부족한 광주문화예회관

열악한 주차시설에 조명까지 어두워 사고위험

공연 안내방송 미흡... '하우스 매니저'도 없어



광주문화예회관 전경

인솔 아래 광주를 방문한 단체관광객이었다.

대부분 교향악단 관람이 처음일 아이들이 방문하면 마땅히 관람 매너를 안내해 줘야 하는데 이날 공연전에는 안내 매너 하나 없었다. 역시나 첫번째 곡인 '베토편 교향곡 3번'이 연주될 때 악장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

회관측은 인터미션 후 급히 안내 멘트를 했지만 관객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안내 멘트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베토편 3번 연주 시에도 박수는 끊이지 않았다. 하필 이날 지휘자는 객원으로 참여한 독일인 아드리안 밀러였다.

최근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막 영상 시스템에 안내 문구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부 직원들의 소극적인 민원 처리

도 문제다.

최근 문화예회관 정기위원회 가입하기 위해 수차례 회관에 전화를 걸었던 A(63·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절차가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하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모른다"며 "짜증나서도 회원 가입을 그만둘까 생각했다."

쾌적한 공연 관람을 돕는 하우스 매니저가 상주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하우스매니저가 없는 곳은 전국 최대의 대형 공연장 중 광주가 거의 유일하다.

광주문화예회관 관계자는 "문화예회관 활성화 방안 등을 준비해 문제점을 점검하며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단계"라며 "하우스 매니저도 내년 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암흑속의 주차장.'

지난 28일 밤 9시 광주문화예회관 지하 주차장 4층 주차장, 대극장에서 열린 '한소리합창단' 공연 관람을 마친 관객들이 찾은 주차장은 암흑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관객들이 많아 자칫 넘어지지 않을까 불안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광주문화예회관이 안일한 운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깜깜한 주차장
문화예회관은 지상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모두 6개 층에서 육내 주차장을 운영중이다. 문화예회관이 지어진 지 20년 가까운 건물이라 주차장 시설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조명마저 전방적으로 너무 어두워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 4층의 경우는 주차장 대부분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며, 지상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각 층계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각 층계에는 조명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은지는 오래됐다. 지난 24일 장사리 공연을 관람했던

한 관객은 "좋은 공연을 본 후 감동을 안고 돌아가야하는데 주차장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무서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객 눈높이 맞는 안내 없어
지난 26일 열렸던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공연이 끝나고 80여명의 단원들이 앙코르 박수를 기다리며 무대에 모두 앉아 있는데 난데 없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멘트는 '수준 높은 관람 매너를 보여준 광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실 때 주변의 휴지를 줍고 가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앙코르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던 관객도, 무대 위의 단원들도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무대를 떠났지만 이젠 한마디로 '코미디'였다. 무대 상황을 끝까지 지켜 보지 않고 오디오를 켜 직원들의 실수였다.

이날 공연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최근 2년간의 광주시향 공연과 달리 이날은 초등학교 단체관람이 많았다. 지방에서 특성화 교육을 위해 교사의

광주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12명 내정

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인사... 참신한 전문가 없어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광주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12명이 내정됐다. 광주시는 29일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윤장현씨 등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12명을 광주문화재단 선임직 이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 대부분이 60~70대로 지나치게 노령화된 광주문화재단을 새롭게 재조직을 추진할 박종환

임무를 맡은 재단 이사진으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사명단=▲윤장현(한국YMCA 이사장) ▲김하림(전 광주전남문화연대 상임대표) ▲이정애(전남대 의대 교수·광주전남환경연합 공동의장) ▲김국용(우리로광통신(주) 대표이사) ▲김응서((주)남해종합개발 회장, (사)광주미술관회 회장) ▲김

재규(전 KBC제작국장) ▲강봉규(전 광주에총회장) ▲김숙자(전남대 예술대교수) ▲김포천(전 광주공연예술재단 이사장) ▲김종(시인·광주시 문화원연합회 회장) ▲문순태(소설가) ▲황영성(화가)
또한 2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에는 당연직으로 광주시 문화수도 지원과장이, 선임직으로 문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곱번째 물빛수채화전 12월2~8일 광주 무등갤러리

물빛처럼 투명한 수채화가 화폭을 물들였다. 물빛수채화회가 오는 12월2~8일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일곱 번째 단체전을 연다.



김은미 작 '함양의 가을'

이번 전시에는 윤명희·정신희·이선하·김옥순·김은미·김수정·김진아·최정애씨가 참여해 물과 색이 만나 빛어내는 단아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윤명희씨는 사실적인 필선으로 노인들의 나른한 오후를 안정된 구도로 포착했고, 정신희씨는 만발한 찔레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다.

또 이선하씨는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 숨은 다람쥐의 생생함을 담았으며, 김수정씨는 한여름 분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발랄함을 그려냈다.

지난 1998년 창립한 물빛수채화회는 수채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여성 작가들의 모임이며, 회원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회원전을 열

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 개혁 퇴색하나

'신정아 사건' 재발방지 '정책연구실' 되레 축소 등 조직개편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허위 화력으로 감독이 됐던 '신정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정책연구실을 축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직 개편을 단행, '비엔날레 개혁'이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또 직원 5명을 새로 뽑기로 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시민참여추진팀이 신설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전시부 등 핵심 부서는 인력 보충을 받을 수도 없게 됐다.

재단은 29일 조인호 특별프로젝트 부장을 정책연구실장, 김은영 정책연

구실장은 전시부장으로 각각 전보했고 재단 4급 직원 3명을 3급, 재단 3급 직원 2명을 2급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또 정책연구실을 시민참여추진팀(팀장 포함 2명)과 정책기획팀(3명)으로 나눴다. 시민참여추진팀은 비엔날레 기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고, 정책기획팀은 과거 정책연구실이 맡았던 총감독 조사 및 검증 등의 역할을 승계한다.

지난 2007년 8월 신정아 파문으로

재단은 ▲정책연구실 신설 ▲상임부 이사장 영입 ▲명예이사장직을 없애고 광주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등 세 개의 큰 축으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실은 개혁 작업의 핵심기구다. 그동안 정책연구실은 총감독 선임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보군을 검증하는 등 재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정책연구실이 2개의 팀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할만 분담된 정책연구실이 정책기획팀으로 축소됐다. 정책연구실이 감독 선임 작업과 함께 시민 축제 기획까지 맡다 보니 고유

업무의 일관성도 사라졌다.

특히 과거 정책연구실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최근 모두 그만두고,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연구실장도 전시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책기획팀의 원활한 업무 이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재단은 우선 5명을 총원해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쳐 각 부서의 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팀원이 전혀 없는 정책연구팀과 신설된 시민참여추진팀은 기존의 인력을 빼서 배치해야 하는 기형적인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또 2008 광주비엔날레 부터 각종 부대행사를 모두 줄이고, 예술성을 강화했던 재단이 느닷없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며 시민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개혁 작업을 통해 자리 잡아가던 정체성에도 혼란을 빚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람이 불고 물이 튀더니 몸이 아래로 '쿵'

광주 유·스퀘어에 'CGV 4D 플렉스' 개관



커다란 웅이 하늘을 날아오르자, 의자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웅과 싸우던 주인공이 내뿜어내려질 때 몸도 같이 쿵 떨어진다. 바람이 불고, 물이 튀고, 코끝에서는 달콤한 향기도 느껴졌다.

광주에 초남 지역 최초의 4D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기존의 3D 입체 영화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4D영화는 오감을 총동원,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을 갖게 해준다.

CGV 광주터미널은 29일 'CGV 4D 플렉스'는 개관과 함께 4D 영화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된 영화로 알려진 '드래곤 길들이기'를 특별 상영했다.

4D 효과는 생각보다 강렬했고 영화 상영 내내 '간장'을 뿜을 수가 없었다.

108석을 갖춘 CGV 4D 플렉스는 특수장비와 의자가 설치돼 있어 영화에서 상영되는 장면이 따라 의자가 움직이거나 진동이 발생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튀는다.

4D 영화는 3D 영화와 달리 따로 제작되지 않고, 2D나 3D영화 모두 프로그램 전환이 가능해, CGV 측이 4D 효과가 큰 영화를 선정, 시나리오 분석 후 각종 효과를 입력시켜 제작한다.

CGV 4D 플렉스는 12월 3일까지 '드래곤 길들이기'와 '스카이 라인'을 상영하며 4일부터는 '나니아 연대기'

로 관객들을 만난다.

티켓 가격은 3D 전환 영화는 1만 8000원(성인)과 1만3000원(학생), 2D 전환 영화는 1만4000원과 1만원이다.

한편 CGV광주터미널은 4D플렉스 개관을 맞아 유료관람객과 선착순 1000명에게 입술보호제 등 선물을 증정하고 감상후기를 남긴 관객에게는 경품도 증정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밤 한밤 직접 케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영화와 연인과 함께!!

<p>상무점</p> <p>1관 렛미인(15세) / 더콘서트(전체)</p> <p>2관 더콘서트(전체) / 두여자(18세)</p> <p>3관 불랑남녀(15세) / 이층의약당(15세)</p> <p>4관 이층의약당(15세)</p> <p>5관 언스토퍼블(12세) / 소우(18세)</p> <p>6관 듀데이트(18세)</p> <p>7관 스카이 라인(12세)</p> <p>8관 소셜네트워크(15세) / 초능력자(15세)</p> <p>9관 부당거래(18세)</p> <p>10관 초능력자(15세)</p>	<p>하남점</p> <p>1관 스카이라인(15세)</p> <p>2관 이층의약당(15세)</p> <p>3관 초능력자(15세)</p> <p>4관 소셜네트워크(15세) / 소우(18세)</p> <p>5관 페스티벌(18세) / 두여자(18세)</p> <p>6관 렛미인(15세) / 불랑남녀(15세)</p> <p>7관 언스토퍼블(12세) / 부당거래(18세)</p> <p>8관 듀데이트(18세)</p> <p>9관 더콘서트(전체)</p> <p>10관 초능력자(15세) / 이층의약당(15세)</p>
--	--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M관 스카이라인(12세)

2관 스카이라인(12세)

3관 이층의약당(15세)

4관 소셜네트워크(15세)

5관 더 콘서트(전체) / 소우3D(18세)

6관 듀데이트(18세) / 초능력자(15세)

7관 렛미인(15세) / 이층의약당(15세)

8관 부당거래(18세) / 페스티벌(전체)

9관 초능력자(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연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터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요금 부과

이층의약당

복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이층의약당(15세)

2관 초능력자(15세)

3관 렛미인(15세) / 페스티벌(18세)

4관 소우3D(18세) / 소셜네트워크(15세)

5관 부당거래(18세)

6관 듀데이트(18세)

7관 스카이 라인(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